



죽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lana@buddhapia.com

### 표류하는 東大 불교학술원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6월 로버트 버스웰 교수(美 UCLA)의 초대 불교학술원장 임명과 함께 출범한 지 100일 여가 됐지만 아직 이렇다 할 활동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보이지 않고 있다.

불교학술원은 동국대 산하 불교문화연구원, 전자불전문화재콘텐츠연구소, 동국역경원, 종학연구소(설립예정)를 하나로 통합한 교역 연구기관이다. 전 이사장 영배 스님의 원력으로 설립됐다는 불교학술원은 스님이 이사장직을 내놓기 직전 설립돼 당시부터 설립취지에 맞는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세간의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내의 기라성 같은 불교학자들을 제치고 푸른 논의 불교학자가 초대 불교학술원장에 임명됐다는 소식에는 다수의 학자들이 국내에서 불교학을 연구하는데 대한 자괴감마저 느꼈다는 후문이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불교학술원은 출범 100여 일을 맞은 지금도 공간부족, 인력충원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간문제 어느 것 조차 갖추질 못했다.

교내 4대 연구기관의 상급 관리 감독기구인 원장부원장단 임명된 채 방치되다시피하다 최근 교내 교직원 1인이 학술원 행정직으로 발령이 났다. 그나마

1인의 직원마저 역경원 담당이던 것을 책상은 역경원에 그대로 둔 채 전산 상 불교학술원으로 소속만 바뀌었다. 각 단과대마다 실장과정급 행정직원 등을 3-5인씩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불교학술원의 공간문제는 더 심각하다. 불교문화연구원 3층에 원장실만 있을 뿐이다. 때문에 교내 어디에도 불교학술원 현판조차 내걸리지 않은 까닭에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는 ‘유령기관이 아니냐’는 우스개도 심심찮게 들린다.

학교 측은 불교문화연구원이 위치한 계산관을 리모델링하면서 확보되는 공간을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나, 그때가 언제 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불교학술원장을 수락하면서 동국대와 외국 대학을 연결하는 역할이 자신의 가장 큰 소임이라고 밝혔다. 이 말을 두고 지금까지도 불교학술원의 설립 취지와 위상에 맞는 원장의 역할인지는 설왕설래가 많다.

하지만 버스웰 교수는 제 몫을 다하고 안하고는 동국대가 불교학술원에 쏟는 관심과 지원에 비례해, 조계종립대로서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겠다는 오명교 총장의 의지에 달린 것만은 자명하다.

## 도덕성·소통능력이 우선

### 김응철 교수 ‘총무원장 자질·정책...’ 연구 발표

탁월한 도덕성과 청렴성, 60이상의 세습 등을 갖춘 리더십으로 종단 화합을 이끌며, 대화적 소통능력과 시대변화를 읽는 능력으로 한국 불교를 이끌 조계종 총무원장.

사부대중이 바라는 제33대 총무원장의 자질은 대내적으로 도덕성, 대외적으로 소통능력으로 드러났다. 또 차기 총무원장의 과제로는 포교활성화와 승가권위 확립 등 교단 청정과 대화적 역할 강화를 꼽았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의장 진오, 이하 대중결사는 9월 14일 대전 장태산 자연휴양림에서 제2회 워크숍을 열고,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의 자질·정책·선거제도에 관한 연구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41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총무원장의 주요자질(10점 만점)에는 △도덕성(9.796점) △승단 내외 존경(9.379) △계파를 초월한 공정성(9.301점) 등이 꼽혔다.

총무원장에게 요구되는 능력으로는 △대사회적 소통능력(9.554점)과 시대변화를 읽는 능력(9.548점)이 우선시됐다. 총무행정 능력(8.313점), 정치적 능력(7.167점)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총무원장 기준 중 ‘세습’은 60~65세(42%)가 가장 선호됐다. 60세 이상을 답한 응답자는 반수 이상에 달했다. 승랍은 35~40년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밝혀 현행 30년 이상 기준에서 5~10년 정도 강화하는 방향



대중결사워크숍에서 참가 스님들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분석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총무원법에 총무원장 안거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15안거 이상의 안거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안거 이상의 자격을 요구한 응답자도 28.9%에 달했다.

총무원장의 자질과 능력 외에 차기 총무원장이 풀어야 할 종단 과제로는 △포교활성화 대책(9.296점), △승가의 대화적 도덕적 권위 확립(9.241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64%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평가는 10% 정도에 불과했으며 ‘매우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23.2%에 달했다. 특히 출가자의 경우 현 선거제도에 대해 부정적 94.9%(매우 부정적 81%)인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선거제도 문제점으로는 △계파 갈등(31.9%) △지나친 세속화(21.2%)가 나타났다. 시급한 개선점으로는 문종이해 증시풍토와 금품수수, 정치적 거래, 친소관계 증시 등이 지적됐다.

이러한 부정적 선거풍토 극복을 위해서는 선거공영제 도입 등 개선책과 전반적인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총무원장 선출의 방법을 묻는 문항에서는 직선제(56.9%)와 추대제(26%)가 선호됐으며 현 체제인 간선제는 11.2%에 불과했다.

김응철 교수는 “종단 개혁 이후 선거를 통해 계파가 나타나고 다시 종권다툼이 심화되는 등 악영향이 나타났다. 선거비용 증가 등을 고려, 개선과 개편의 합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둔 사부대중의 의사들을 디딤돌로 새로운 정책 수립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진오(구미 대문사 주지), 만초(울산 해남사 주지), 금강(해남 미항사 주지) 등 20여 스님들이 참석했으며, 도법 스님의 ‘대중결사에 바란다’와 안직수 한국불교기자협회장의 ‘기자가 바라본 종단 과제’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 “청정선거로 한국불교 미래 열자” 조계종 4대 정책모임 성명서 발표

조계종 중앙종회 정책모임인 무량회·무자회·보림회·화엄회는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청정, 공명선거 진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4대 정책모임은 9월 17일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깨끗한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를 통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청정선거 성명 발표에는 무량회(성관, 원담, 무자, 의연, 대오, 정범, 현조)와 보림회(종호, 승연, 종성), 화엄회(혜오, 덕문, 성호, 선광) 등 총회의원 14명이 참석했다. 무량

회 측은 시간 전달의 착오로 오후 2시 40분에 발송했다.

4대 정책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40여일을 앞둔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는 94년 종단개혁 이후 정상적 일정을 통해 진행되는 첫 선거”라며 “하지만 최근 괴문서 배포와 같은 선거혼탁행위에 종단 백년대계를 기약할 수 없어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4대 정책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향후 △인신비방·흑색선전 등 해정법, 현조)와 보림회(종호, 승연, 종성), 화엄회(혜오, 덕문, 성호, 선광) 등 총회의원 14명이 참석했다. 무량

노덕현 기자

## 10월 중순 후보자 초청 간담회

###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 법주사서 개최 결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성타, 불국사 주지)는 9월 10일 장성 백양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10월 16-18일 경 보은 법주사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당초 본사주지협은 각 원장 유력 후보군을 순차적으로 초청하려 했으나 조계종 호법부의 사전선거운동 지침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출마의사를 밝힌 전 교구원장 도영 스님이 참

석했으나, 인사만 하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이날 ‘교구본사 주지의 중앙총회의원 겸직 허용’ 관련 입법청원을 논의하고 조선왕실의 폐 반란 축구 결의문 채택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증축 추진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계사, 신흥사, 동화사, 고운사, 송광사, 해인사, 대흥사, 봉선사 8개 본사를 제외한 16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모두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 자승 스님 괴문서 지적 “위법성 없어”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 유력후보인 자승 스님의 승적 변동 내용을 답이 전국 2000여 사찰에 배포된 ‘괴문서’에 대한 공식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총무원 기획실장 장직 스님과 호법부장 정만 스님은 9월 17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괴문서’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총 16장 분량의 괴문서에는 중앙총무원장과 교구본사에서만 조회 가능한 ‘승적 기록이 포함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날 정만 스님은 ‘괴문서’가 지적한 자승 스님의 승적 정정에 대해 ‘행정·법률적 위법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1972년 사미계 수지’에서 1990년 ‘1969년 사미계 수

지’로 기입해 1994년 조계종 호계원(당시 호계원장 고산)으로부터 문서건책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징계 후 승적이 변경되지 않아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이던 2006년에 ‘1972년 사미계 수지’로 수정됐다.

정만 스님은 “승적변경신청서를 접수, 총무원장 스님의 결재를 받아 처리했고, ‘승적업무처리명’ 공포가 2월 14일인 반면, 승적정정 신청이 2월 7일, 최종정정이 2월 22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괴문서 유포와 관련, “종로사에서 2268번 발송 견수와 CCTV 조사 결과 남 1명, 여 2명으로 용의자가 출현한 상태”라며 “조화한 총무원은 6명이지만 교구본사와 중무기관에서 조화가 가능한 만큼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10월 22일 확정

### 중앙선관위 결정... 후보자 심사는 등록 6일 이내

10월 22일로 예정된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계, 이하 중앙선관위)는 9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09차 회의를 열고, 10월 22일 오후 1~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불교문화공명장에서 제33대 총무원장 선거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로, 후보자 자격심사는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6일 내 이뤄진다.

각 교구별 선거인단 선출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로, 선관위는 선거인단 선출 시 부정을 막기 위해 중앙선관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각 교구본사의 중앙선관위 공

노덕현 기자

##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정이 ‘현대불교’를 이룩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달은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 법보시 대상 \*\*\*\*\*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 법보시 후원 안내 \*\*\*\*\*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 奉 大韓佛教法華禪宗 創宗宣布 祝

## 宗正法語

# 一心不生 萬法無咎

歸依三寶 하옵고  
21世紀의 다가오는 未來에 대한 世界的인 큰 變化와 새 時代를 맞이하여  
修行 精進에 뜻을 함께 하는 이들이 모여 圓覺 常鮮 禪師를  
宗正으로 모시고 2009年 9月 25日 大韓佛教法華禪宗을  
創宗함을 宣布합니다. 본 宗團을 創宗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創宗法會를 奉行하고자 하오니 隨喜 同參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총본산: 法安寺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교육원: 九龍寺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수련원: 白華庵 (전남 여수시 여천군 삼산면)  
지도원1: 충북 단양군 단양읍 가산리  
지도원2: 전남 장흥군 용산면 풍길리

1.日時: 2009年 9月 25日 (金) 午前 11時  
2.場所: 三角山 法安寺(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 68-1)  
3.連絡處: 02-992-8288

◎ 創宗趣旨文 ◎

本宗은 釋迦牟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最上乘의 眞理를 奉體하며  
元曉聖師를 宗祖로 모시고 元曉聖師의 和諍思想과 智儼和尚에게서 法을 이은  
義湘祖師의 華嚴思想에 立脚하여 和合을 修行의 根本으로 합니다.

宗名은 元曉聖師께서 創宗하신 法性宗과 義湘祖師께서 創宗하신 華嚴宗의  
法統과 思想을 잇고 達磨祖師부터 六祖 慧能大師까지의 禪法을  
이어 받는다라는 뜻에서 大韓佛教法華禪宗이라고 稱하였습니니다.

宗旨는 三界의 一切 衆生이 나와 남을 위하여 最上乘의  
眞理를 닦아 本性을 回復하고 自性を 밝혀서 生死의 大海를 건너  
참다운 涅槃寂靜의 境地에 이르러 華嚴의 世界를 莊嚴하며  
圓覺의 消息을 隨緣放光하고 逍遙 自在하여 一切 衆生이  
다 함께 離苦得樂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儒佛仙 三教를 會通하고 地球上的 모든 思想과  
人種, 宗教의 大和合을 이루어 參眞理를 함께 나누고 다가오는  
宇宙時代에 온 宇宙와 地球의 모든 生命體에게 밝은 빛이 되어  
無明을 밝히도록 大願을 세워 創宗의 趣旨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러한 趣旨에 뜻을 함께 하는 이들이 모여 三界의 一切 衆生이  
成佛의 證果를 이루는 날까지 修行 精進과 祈禱에 邁進하며 因緣있는  
모든 善男子 善女人들에게 聖人의 가르침인 參眞理를 널리 弘布할 것을 선포합니다.

宗 正 : 圓覺 常鮮  
總務院長 : 義田 一通

宗 正 : 圓覺 常鮮 務總務院長 : 義田 一通 教育院長 : 一定 太昊 祈禱院長 : 大圓 白陽 四部大衆 一同

※ 宗正 아래 얽은 연꽃그림 삭제됐다 필름 출력시 확인해 주세요. - 편집부~ 자유지 마세요!!